



경량항공기 사고 중간 보고서

이륙 상승 중 추락

자가용

SAVANNAH, HL-C114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승진항공 이착륙장

2017. 1. 1.



2018. 3.



경량항공기(HL-C114, SAVANNAH)사고 중간보고서

가. 사고

- 운영자: 개인
발생장소: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승진항공 이착륙장
(N 37° 13'17.67", E 127° 36'38.32")
- 발생일시: 2017년 1월 1일 09:05경 (한국표준시각)
- 항공기 형식 및 등록부호:
 - HL-C114, 사바나(Savannah), 05-10-51-425, 경량항공기
- 비행 유형: 체험비행
- 탑승자 수: 2명(조종사 1, 체험자1)
- 부상자 수: 피해 없음
- 항공기 손상: 대파
- 조종사의 조종증명: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 조종사 나이: 49세

나. 개요

2017년1월1일 09:03경 조종자와 동승자 1명이 탑승한 경량항공기 HL-C114가 경기도 여주시 승진항공 이착륙장에서 레저 목적으로 이륙하였다. HL-C114는 이륙 후 정상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상 장애물과 충돌하여 활주로 끝에서 약 80m 떨어진 지점에 추락하였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경량항공기는 대파되었다.

다. 사고현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고발생 통보를 받아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조사를 시작하였다. 사고발생국인 대한민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기설계국인 이탈리아 항공사고조사국에 사고발생을 통보하고 신임대표(AR) 임명을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사고발생 즉시 현장과 사고 잔해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으며, 관계자 진술, 잔해조사, 정비자료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였다. HL-C114는 추락하면서 나무와 충돌하여 프로펠러 2엽이 파손되었고 나무에 걸려 추락하며 좌·우측 날개 끝부분이 휘어졌고 우측날개 중간부분 2곳이 손상되었다. 전방착륙장치는 충돌로 인하여 뒤로 젖혀졌고 조종석 좌·우측 방풍창은 파손되었다.

다. 비행 경위

2017년 1월 1일 09:03경 HL-C114는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승진항공 이착륙장에서 조종자 및 동승자가 함께 탑승하고 취미 비행을 위해 이륙하였다. 상승이 시작된 후 평상시와 다르게 정상적으로 상승되지 않아 지상 장애물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회피조작을 시도하였으나 고도가 낮아 프로펠러가 나무와 부딪히고 좌·우측날개가 지상 장애물과 충돌되어 09:05경 활주로 끝으로부터 약 80m 지점에 추락하였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마. 추가정보

HL-C114는 2006년 5월 3일 이탈리아 I.C.P. srl 사에서 제작 되어 2012년 7월12일 국토부에 등록 하였으며, 엔진은 오스트레일리아

자비루(Jabiru)에서 제작한 Jabiru 2200A 엔진을, 프로펠러는 이탈리아 GT-2 프로펠러를 장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기상은 기온은 -4°C , 하늘은 맑았으며 바람은 남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시속 1km 이하로 불었고 강수현상은 없었다.

사고현장에서 확인한 엔진 기화기 챔버내 연료량은 Full이었으며 잔여연료는 약 16리터였다.

위원회는 사고항공기의 상승저하 원인규명을 위해 기상상태, 이륙 전 점검 및 항공기 정비관리 문제점에 대해 중점 조사 중이다.

바. 안전권고

이 사고조사와 관련한 안전권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